화성시가 지난 16일 경부직선화사업 현장사무실에서 '공정점검단'최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./사진제공=화성시경기 화성시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적기 추진을 이끈 '공정점검단' 최종 회의를 열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.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동탄 JCT에서 기흥동탄 IC에 이르는 총 4.7km의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이다. 지하 구간 1 .2km 구간의 상부공간은 상부연결도로, 공원 조성 등 동서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기적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한다.당초 경부직선화사업은 2022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방음터널 규모, 내연 및 내화설비 등 설계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야기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·관·정·건 공정점검단을 구성했다.공정점검단은 2022년 3월 발대한 이후 현재까지 10번의 회의를 열어 직선화사업이 적기추진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. 직선화사업 이후 지하화구간 상부 동서연결도로, 임시보행차로 등 현안 해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.정명근 시장은 "경부직선화사업과 더불어 동서연결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동탄1과 동탄2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"이라면서 "올해 개통 예정인 동서연결도로도 적기 추진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"고 말했다.공정점검단은 이번 최종 회의를 끝으로 해산한다. 시는 현안사항인 동서 연결도로와 더불어 GTX 개통을 고려한 임시보행차로 설치를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.